

투데이

# 저소득층 대학생 광주 36%·전남 34%

### 기재부 첫 소득조사...대구 39% 전국 최고 소득 낮을수록 사립대보다 국·공립대 몰려

광주·전남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저소득층 대학생 비율이 대학 소재지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사립대보다 국공립대에서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훨씬 높았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의 도움으로 국가장학금 신청자 103만 5000명의 부모 소득을 분석했다. 43만 4000명이 저소득층으로 분석되는 소득 수준 1~3분위 가정으로 파악됐다. 전국 대학생의 약 80%를 대상으로

소득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득분위는 건강 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만든 개념으로, 전국 가구의 평균 소득금액을 10개 그룹으로 나눈 것이다. 1분위는 최저소득층이고 10분위는 상대적으로 최고소득층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를 보면 고소득층인 10분위는 14.2%로 전체 분위 중에서 가장 높았다. 소득 하위 30%(3분위 이하)인 저소득층 비율은 수도권 27.5%, 비(비)수도권 34.4%로 지방이 더 높았다. 지방에서는 대구의 저소득층 비율

이 39.1%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38.2%)과 전북(37.3%), 광주(36.2%), 제주(35.6%)가 뒤를 이었다. 전남은 34.0%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8번째로 많았다. 서울(26.4%), 울산(27.9%), 경기(28.1%)는 저소득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설립주체별로는 국립대 전체 재학생의 40.1%가 저소득층이었으며 공립은 36.9%였다. 사립대는 저소득층 비율이 29.9%에 그쳤다.

학제별로는 4년제 대학의 저소득층이 32.2%, 전문대는 30.2%로 비슷했다. 4년제는 농어촌·저소득층 특별전형이 있어 전문대보다 저소득층 비율이 다소 높았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7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전체 대학 재학생이 신청하도록 했다. 전체 소득 수준을 파악하려

는 목적에서다. 신청자는 105만 9000명으로 전체 재학생 136만 9000명의 77.3%였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한 서류를 제출한 103만 5000명이 분석 대상이었다.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전체의 31.7%였다. 중간 계층인 4~7분위는 전체 재학생 대비 3~5%대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4~7분위 학생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아니어서 신청자가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최초의 통계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 재정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에서 저소득층에 더욱 많은 혜택이 가도록 이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박준영 지사, 신안 군민과의 만남**  
2일 신안군청에서 열린 도정보고회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주민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해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 제공>

## 국토부 "J프로젝트 부동산구 부정적"

### "경제성 낮아 추진 어렵다" 발표에 전남도 난감

정부부처의 잇따른 제동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남해안 레저관광개발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의 부동산구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 전남도가 난감해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일 무안 기업도시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최종 승인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전국 기업도시 추진상황에 대한 첨부자료를 함께 내놓았다. 국토해양부는 이 자료에서 전국 5개 기업도시의 행정절차 진행과정과 착공시기, 택지 분양률, SOC 확보 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 자료에는 J프로젝트에 대해 '평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지'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수할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았다. 국토해양부는 그러나 J프로젝트 4개 사업지구 중 부동산구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저조하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특히 부동산구만을 별도로 언급하며 "타당성 재검증을 시행한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부동산구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지구 중 유일하게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가 중단된 상태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부동산구는 사업부지간 간척지 양도양수에 농림수산식품부가 반대하

면서 타당성 재검증을 시행했고 지난 해 말 KDI는 타당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도시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이에 따라 사업중지를 전남도에 권고했다.

전남도는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국토해양부의 이날 발표자료에 대해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국토해양부 발표자료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추진에 또다른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주관부처가 아닌데도 굳이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부동산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도 과정이 잘못된 만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승객 줄고 시민 부담, 사업주만 배불러"

### 광주시민모임 " 시내버스 요금 인하를"

광주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이용객은 줄고 시민부담이 늘어난 반면 사업주 이익만 늘어 요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버스요금 인하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공동대표 안영돈·윤영대)은 2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지난해 7월 시내버스 요금을 일반인 기준으로 200원 인상하는 바람에 지난 한해 버스 이용객은 전년보다 123만

5000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또한 "광주시가 연간 100억원의 시민 추가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연간 169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광주시의 재정지원금은 연간 35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18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으로 재정지원금은 줄어들었지만, '시민 직접' 부담

은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내버스 주 이용객이 서민이란 점에서 시민들의 호수면허 사정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가 운송원가 등을 인상해준에 따라 운송수입금은 84억7000만원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버스요금을 거둬 버는 사업주의 배를 채우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임은 "시내버스 운전원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일부 시내버스 업체는 노동자의 퇴직연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가스충전비, 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모임은 "시내버스 사업주에게 고통을 분담하도록 운송원가를 감액하고 시내버스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버스 이용객이 감소는 폭설 등 기상 상황과 노선조정 때문"이라며 "또한, 지난해 임단협을 통해 버스 운전원의 정년 1년 연장 및 대당 적정 운전원수를 기존 2.45명에서 2.55명으로 늘렸고, 퇴직연금·가스비·식대 등도 지금은 모두 지급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간 노동과 저임금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일부 시내버스 업체는 노동자의 퇴직연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가스충전비, 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모임은 "시내버스 사업주에게 고통을 분담하도록 운송원가를 감액하고 시내버스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버스 이용객이 감소는 폭설 등 기상 상황과 노선조정 때문"이라며 "또한, 지난해 임단협을 통해 버스 운전원의 정년 1년 연장 및 대당 적정 운전원수를 기존 2.45명에서 2.55명으로 늘렸고, 퇴직연금·가스비·식대 등도 지금은 모두 지급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일보 지역신문 우선지원대상 선정

광주일보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문화관광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최창섭)는 2일, 광주일보를 비롯한 지역 일간지 27개사와 주간지 43개사를 '201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 언론사 수는

지나해에 비해 일간지는 30개사에서 27개사로, 그리고 주간지는 51개사에서 43개사로 각각 줄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언론사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사업, 연수교육 사업, 정보화 사업, 공공성 구현사업 과 독자사업 등에 기금이 지원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축산농가 돕기 직거래장터 오늘 광주시청 광장

축산농가 돕기 직거래장터가 3일 광주시청 광장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청 앞 광장에서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광주축산농협 주관으로 지역 축산농가를 돕기 위한 직거래장터 개최행사를 개최한다. 2일 밝혔다.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대보름을 앞두

고 시중가보다 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한우고기를 판매한다. 주요 판매 품목은 등심, 국거리, 장조림, 불고기, 사골, 꼬리, 우족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보름을 앞두고 저렴한 가격에 한우고기를 판매하는 이번 직거래 장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 축산농가 돕기에도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부정입학 물의 대입 특별전형 확 바꾼다

최근 부정입학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농어촌 등 대입 특별전형제도도 전면 개선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공정사회 추진현황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공정사회 핵심 추진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대입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 기준을 정비하고 제제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농어촌·특성화고 특별전형 등 대입 정원의 특별전형에 대한 감사에서 865명이 농어촌 위장정입(479명)과 특성화고 동일계열 특별전형(379명) 등의 위반 의심사례로 적발된데 이은 후속 조치다.

교과부는 가장 문제가 된 농어촌 특별전형의 경우 농어촌 특별전형 대

상 지역을 어느 곳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성화고 졸업자가 동일계열 대학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게 하는 동일계열 특별전형의 경우 이미 제도 개선을 통해 연차적으로 허용 비율을 축소하고 있는 만큼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동일계열 판단 기준을 좀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합뉴스>

## 우암학원 창학62년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하는 전남과학대학 2012학년도 교수초빙

**초빙학과 및 초빙분야**

초빙학과명	초빙인원	전공과목	비고 (세부조건 및 우대사항)
간호과	0명	간호학	박사학위소지자 (2012년2월 예정자 가능) 간호학전공자(학사일치), 시뮬레이션 수업 가능자 우대 미국 RN 자격증 소지자 우대, 병원 임상경력 2년 이상

- 지원자격**  
- 대학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초빙공고일로부터 4년 이내 연구실적 200% 이상인 분
- 제출서류**  
가. 공개재용지원서 1부(홈페이지 출력) 나. 자기소개서(홈페이지 출력)  
다.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성적 및 졸업증명서 각 1부  
라. 연구실적품 마. 경력증명서
- 제출기한**  
2012년 2월 8일(수) ~ 2월 10일(금) 오후 6시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 제출처**  
본 대학 행정지원처(061-360-5023)
- 심사절차 및 기준**  
가.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기초심사- 전공분야 학위, 연구실적 등 적격심사  
전공심사-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산업경제력 향상 (기초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나. 공개강의심사 다. 면접심사 : 인성 등 심사  
라. 최종합격자 : 개별적으로 통지
-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나. 해당분야에 책임자가 없을 시는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기초심사심사후 면접대상자는 개별 통지함 라. 신임(전임)교원은 계약제로 임용함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인사규정에 의함

**全南科學大學校**  
홈페이지 : chunnam-c.ac.kr  
인사담당전화 1588-5051

철저한 독일인의 장인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전통 침.뜸.부항**  
미국 이민 및 해외한의사 진출 설명회

- ◎ 중국 중의약대학과 18년간 학술교류로 체계화된 교육과정
- ◎ 중의약대학 침구과(3년), 중의과(5년) 학점인정
- ◎ 해외에서 인정되는 중국 자격증 취득가능
- ◎ 중국, 미국 한의대 석박사과정 입학 및 편입가능
- ◎ 의료개방 대비, 자기 건강관리, 해외봉사를 위한 연수세미나
- ◎ 해외이민, 한방병원 설립 및 해외진출, 취업지원

**"알기쉬운 침구학" 세미나과정**

- 기본과정(4개월-주1회3시간)
- 주요과목: 침구학개론(침통기초, 경락경혈, 침구치료), 한방기초
- 전문과정(1년)
- 주요과목: 중국침구학연수, 중의학, 경혈학, 진단학, 방한학, 해부학 등

광주 261 2월 4일(토) 오후 2시-5시  
광주분원 위치: 병촌역 1번출구 화정역방향 50m직진 3층

미국이민 및 해외의사진출 설명회  
광주분원 2월 4일(토) 오후 2시

※ 본 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서울분원/대전분원/대구분원/부산분원/울산분원/광주분원/제주분원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체세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시주명리학·동강대학교

**조선대 관상학:**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법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라고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낮 놓고 가져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 시주명리학:** 광주시내 평생교육원중 가장 많은 수강생이 몰려드는 그 비결은? 한번 들으면 인생의 모든 비밀이 눈에 확 들어온다! 최첨단 영상으로 학습능력을 배가 하고 집에서다도다 카페에서 동영상으로 다시 복습할수 있다.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관전화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관상학 주간	2월 28일부터 매주 화요일	14-16시	150,000원	230-7700-2
	관상학 야간	3월 2일부터 매주 금요일	19-21시	150,000원	
동강대학교 평생교육원	시주명리 초급	3월 9일부터 매주 화요일	19-21시	120,000원	520-2516
	시주명리 고급	3월 9일부터 매주 목요일	19-21시	120,000원	

- 조선대 등록-2월 1일부터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등록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7-000152(예금주 :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2월 1일부터 ~ 전화 등록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노력자, 장애자, 생활수급자, 복수과목 감면 신청 등  
**교육전담강사** 소식 동아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문의: 각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0-3644-7232